

성공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어드바이저

# CHANNEL

2022 OCTOBER  
Vol.237

WELCOME  
TO   
KPMG

신임 삼정인의  
꿈과 청혼을 응원합니다!

삼정  KPMG

## COVER STORY

여러분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 Everyone a Leader!

Welcome! 신입 삼정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공자는 “산은 움직이려 하는 사람은  
작은 돌을 들어내는 일로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작지만 실천하는 하루하루가 쌓여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veryone a Leader!’를 추구하는 삼정KPMG는  
신입 삼정인들의 목표와 성장을 지원합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신입 삼정인들의 작은 실천이 모여,  
지금보다 더 큰 성장을 이뤄 가기를 힘껏 응원해봅니다.

발행처 삼정KPMG

기획·편집 홍보팀(02-2112-7567)

디자인 네오메디아(02-512-1666)

인쇄 드림인쇄(02-464-6161)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우편번호)06236

홈페이지 [home.kpmg/kr/ko/home.html](http://home.kpmg/kr/ko/home.html)

# CONTENTS

OCTOBER 2022 Vol.237

삼정KPMG 뉴스레터



QR코드를 통해 삼정KPMG의  
생생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정KPMG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 행복한 일터

### People First I 16

MZ세대 취향 저격!  
2022 신입 회계사 교육 현장 속으로

### People First II 20

2022 신입 회계사 집중탐구  
열정으로 뭉친 신입 회계사 4인방을 소개합니다!

### 인재양성소 22

GEP 12기 우수자 영국 캠브리지 해외연수 스토리  
2주간의 영국 해외연수 즐거웠나요?

### 삼정인터뷰 24

꿈과 희망을 전하는 멘토 3인방!  
“열정 가득한 학생들 보며 더 힘을 얻어요!”

### 이동규의 두줄칼럼 26

혁신의 최전선

### 心 Care 28

언제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까?  
마음 돌보기의 골든타임

### Samjong News 30

‘제8회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 성료 외

## 건강한 성장

### 04 Emerging Trends

아시아·태평양에서 주목받는 이머징 자이언트 기업은?

### 06 Market Reader

무엇이 헬스케어 산업의 변화를 이끄는가?

### 08 Team Story

디지털 회계감사 선구자, DPP-Audit Innovation팀

### 10 Client+

글로벌 제약 시장을 선도하는 동아ST

### 12 Expert's Advice

불황 속 주목받는 부실채권(NPL) 시장 대응 전략은?

### 13 맛있는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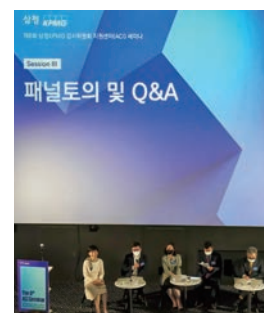
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 상식!



08p



16p



22p

30p

# 아시아·태평양에서 주목받는 이머징 자이언트 기업은?

아시아·태평양(아·태) 지역은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 기업의 빠른 성장과 함께 글로벌 주요 비즈니스 흐름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KPMG는 HSBC와 공동으로 한국, 중국, 인도, 일본, 호주 등 아·태 지역의 12개 주요 시장에서 5억 달러 내외의 가치로 평가되는 기술 중심 이머징 자이언트 기업 6,472개를 조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아·태 지역의 상위 100개 성장 유망 기업을 선별하고 지역별 10개의 떠오르는 기업 리스트를 발표했다. 이번 호에서는 아·태 지역에서 가장 핫(Hot)한 이머징 자이언트 기업 및 산업 동향에 대해 살펴본다.



\*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본 칼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의 이머징 자이언트 TOP 10 기업

순위	기업명	글로벌 순위	분야
01	트릿지 (Tridge)	*글로벌 순위: 10위	애그테크(AgTech, Agriculture+ Technology), 공급망테크(Supply Chain Tech)
02	포티투닷 (42dot)	*글로벌 순위: 49위	자율주행, 이커머스, 모빌리티테크, 승차공유, 로보틱스 및 드론, 공급망테크
03	두산로보틱스	*글로벌 순위: 79위	제조업, 로보틱스 및 드론
04	플렉스 (Flex)		HR테크
05	플라네타리움 (Planetarium, 나인코퍼레이션)		게이밍, 암호화폐/블록체인
06	블랭크코퍼레이션 (Blank Corporation)		이커머스
07	뱅크샐러드 (BankSalad)		핀테크
08	퓨리오사에이아이 (FuriosaAI)		AI(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빅데이터
09	엔유 (Nyou)		게이밍, 모바일
10	코인원 (Coinone)		암호화폐/블록체인, 핀테크, TMT(통신미디어기술)

Source: KPMG 및 HSBC 분석 기준 밸류에이션 5억 달러 내외 기업으로 선정

## 이머징 자이언트 기업 중국과 인도가 많아...한국은 6위

2021년 아·태 지역의 유니콘 기업 수는 전년 대비 25% 이상 증가해 450개를 넘어섰다. 민간 투자 또한 전례 없이 급증했다. 2021년 전 세계 민간 벤처 기업에 투자된 6,700억 달러 중 1,930억 달러가 아·태 지역에 몰리며 전년 대비 65.6% 증가했다. 또한 아·태 지역 내 벤처투자 건수는 총 12,119건에 이르렀다. 이러한 급증 추이에는 팬데믹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새로운 성장의 원천을 찾으려는 투자자들의 갈망이 반영돼 있다. 아·태 지역 내 이머징 자이언트 기업이 가장 많이 분포한 국가는 중국(32.8%)과 인도(30.1%)였다. 이어 일본(12.7%)과 호주(8.7%), 싱가포르(3.8%), 한국(2.4%), 홍콩(SAR)(1.2%) 순으로 많이 분포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및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는 전체의 약 3%로, 이머징 자이언트 기업이 빠르게 성장 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이머징 자이언트 주요 산업, NFT · DeFi 분야가 강세

아·태 지역의 이머징 자이언트 기업의 산업 분야는 핀테크, 생명공학,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을 포함해 다양한 기술 분야에 분포해 있다. 그중 이머징 자이언트 기업의 25% 이상(1,780개)이 블록체인 관련

범주인 대체불가토큰(NFT)과 탈중앙금융(디파이, DeFi) 관련 분야로 분류됐다. 블록체인 부동산과 탈중앙화자율조직(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도 상위 20개 업종에 포함됐다.

지속가능성 및 ESG 분야 기업도 이머징 자이언트에 상당 부분 포함됐다. 아태 지역의 이머징 자이언트 상위 20개 섹터에 EV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재사용 포장재, 지속 가능한 패션 등이 포함되며, 이머징 자이언트 기업의 약 15%가 지속가능성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경과학기술, 정신건강기술 등 의료 관련 분야 또한 포함됐다. IoT 보안,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분야도 상위 10개 분야 내에 진입했다. 양자컴퓨팅(Quantum Computing)과 인지컴퓨팅(Cognitive Computing) 등 첨단 컴퓨팅 기술도 상위 20개 분야에 들었다.

○ **한국의 이머징 자이언트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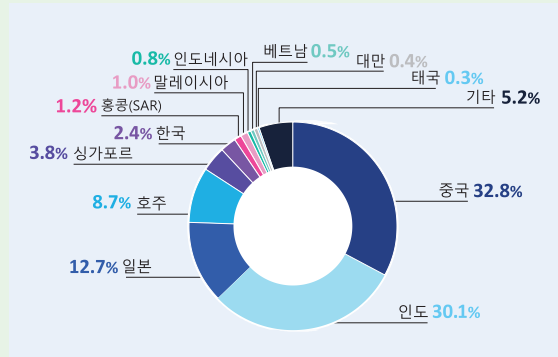
**높은 R&D 투자 등으로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 전망**

아태 지역의 Top 100 이머징 자이언트 중 한국 기업은 농수산물 무역 플랫폼 트릿지(Tridge-10위), 자율주행 교통시스템 스타트업 포티투닷(42dot-49위), 산업용 로봇 제조기업 두산로보틱스(79위)가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암호화폐/블록체인(플라네타리움, 코인원), 핀테크(뱅크샐러드), 인공지능(퓨리오사에이아이), HRT테크(플렉스), 이커머스(블랭크코퍼레이션), 엔터테인먼트(앤유) 등 분야의 기업이 한국의 이머징 자이언트 Top 10에 선정됐다.

향후 한국은 높은 R&D(연구·개발) 투자 수준 및 인재 발굴 노력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창업 거점으로 더욱 자리매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기준 국내 R&D투자액은 GDP의 4.6%에 해당하는 830억 달러로, 전 세계 다섯 번째 규모이다. 게다가 R&D 투자액의 75%를 민간 기업에서 총당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선순환을 이끌었다. 이에 한국의 유니콘 기업 또한 2017년 3개에서 2022년 4월 12개로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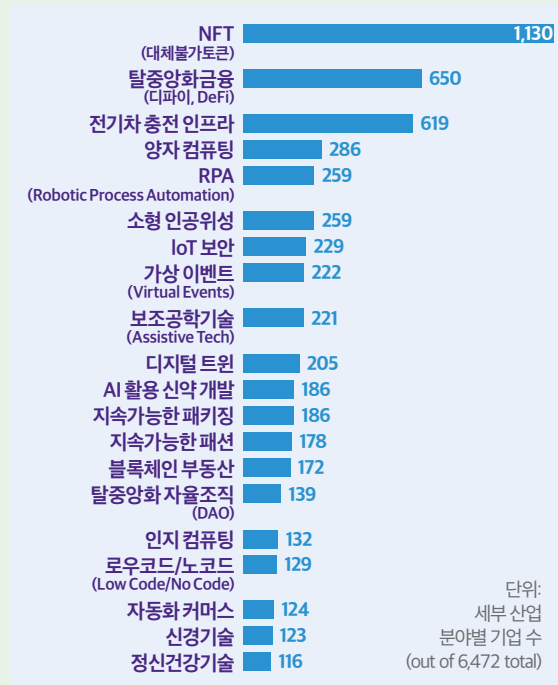
앞으로 국내 기술 스타트업은 한국 미디어&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높은 글로벌 인기 등을 필두로 글로벌 시장으로의 사업 확장을 가속화하며 이커머스, 엔터테인먼트, 녹색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태평양 내 국가별 이머징 자이언트 분포 (%)**



Source : KPMG-HSBC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6,472개 스타트업(기업가치 5억 달러 내외) 대상 분석

**아시아-태평양 이머징 자이언트 기업의 20대 세부 산업 분야**



Source : KPMG-HSBC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6,472개 스타트업(기업가치 5억 달러 내외) 대상 분석, 대상 기업의 120개 산업 분야 중 상위 20개 세부 산업 분야

**CONTACT US**

**스타트업지원센터**  
**김이동 부대표(센터장)**  
Tel. 02-2112-0343  
E-mail. yidongkim@kr.kpmg.com



**경제연구원**  
**류승희 선임연구원**  
Tel. 02-2112-7469  
E-mail. seungheeryu@kr.kpmg.com



## 무엇이 헬스케어 산업의 변화를 이끄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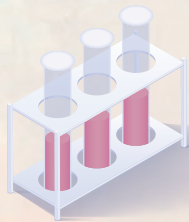
KPMG Global은 미국, 영국, 호주, 중국 등의 헬스케어 산업 리더 200명을 대상으로 헬스케어 산업의 변화에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의 80%는 기존 의료 서비스 제공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79%는 향후 3년 내 의료 서비스 모델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65%는 디지털 기반의 의료 서비스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답했으며, 투자 우선순위에서도 의료 서비스의 디지털화(66%)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 헬스케어 산업에서 일어난 인식·기술·대상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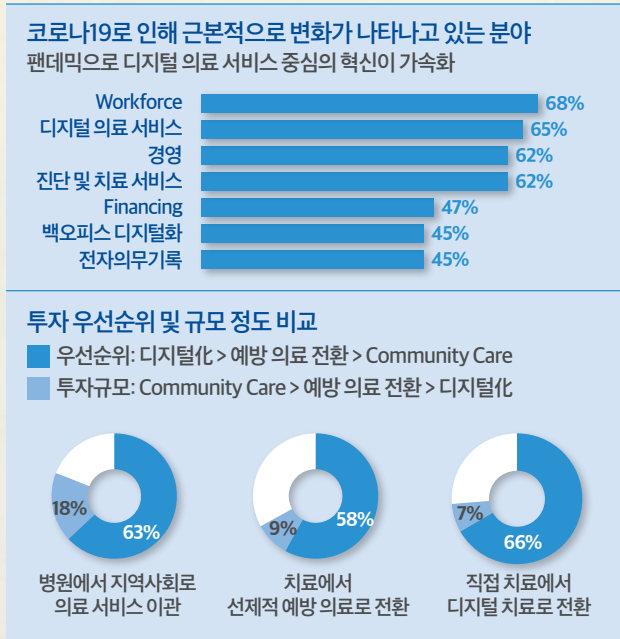
최근 헬스케어 산업 리더들의 인식 변화와 디지털 기술의 폭발적인 발전이 접목되면서 의료 서비스 유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들이 출시되며 질병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한 환경이 구축되고 있다.

헬스케어의 주고객으로 고령층이 부상하며 의료 서비스 대상의 변화가 일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OECD 38개국 중 2위로 2040년에는 국민 3명 중 1명이 고령층에 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재 국내 고령자 10명 중 8명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전체 고령자 55%가 2개 이상의 만성 질환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치료와 관리가 모두 필요한 만성질환에 대한 의료 서비스 수요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디지털이 불편하고 낯설었던 고령층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디지털 플랫폼 안에서 명확한 정보를 찾고, 평가하고, 조합하는 개인의 능력)가 높아짐에 따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헬스케어의 성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의료업계 경영진의 트렌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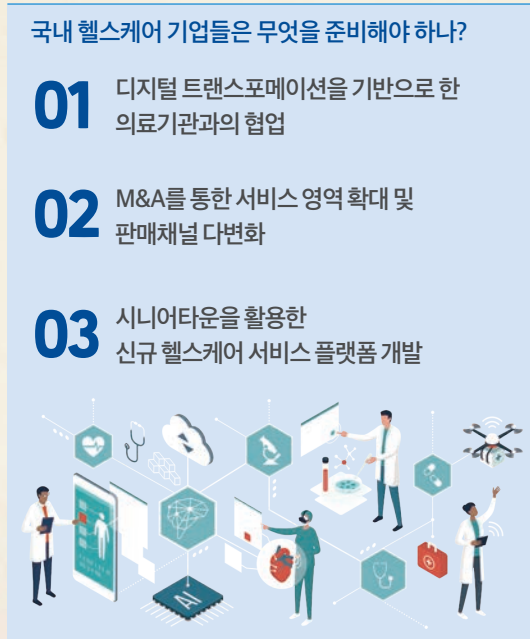
Source: 2021 Healthcare CEO Future Pulse

**○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먼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의료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하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은 대형병원과 협업한 연구개발(R&D)을 추진해 제품을 고도화하고, 1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관리에 제품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병원은 인력, 공간, 장비의 한계에 성장이 제한된 구조이며, 디지털 헬스케어 업체와 병원이 서로 윈윈(Win-win)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협업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인수합병(M&A)을 통해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거나 판매 채널을 다변화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 의료산업에서 각각의 기업은 각 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강점이 있다. 어떤 기업은 한 질병에 대한 오랜 연구와 사업을 바탕으로 다수의 고객층을 확보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어떤 기업은 다양한 유통 및 인프라망을 확보하여 신규 사업을 즉각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기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업 간의 각기 다른 장점이 M&A를 통해 합쳐질 경우 서비스 영역을 다른 질환으로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격 의료·처방·건강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로의 연계를 통한 수익 확대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의 대응 방안]**



Source: 삼정 KPMG

마지막으로 시니어타운의 성장에 주목해야 한다. 국내 시니어타운이 과거 일본과 유사한 패턴으로 향후 5년 내에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실제로 대기업과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시니어타운과 병원을 연계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차별화된 시설과 서비스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등 차세대 기술을 활용해 시니어타운을 새로운 헬스케어 서비스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본 칼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 O N T A C T U S**

**컨설팅부문 파트너**  
**박경수 상무**  
Tel. 02-2112-6710  
E-mail. kyungsoopark@kr.kpmg.com



**경제연구원 박도희 수석연구원**  
Tel. 02-2112-0904  
E-mail. dohwipark@kr.kpmg.com

# 디지털 회계감사 선구자, DPP-Audit Innovation팀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은 물론, 기업 경영 환경은 날로 복잡해지고 규모 역시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기존 아날로그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기에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삼정KPMG는 기업의 디지털 감사 혁신을 이끌고자 DPP(Department of Professional Practice) 내에 Audit Innovation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디지털 회계감사의 선구자인 Audit Innovation팀을 만나본다.

## ○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감사로 전환해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언택트 회계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아울러 가상화페와 같은 새로운 아이템이 등장하는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과 다른 새로운 감사 기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신뢰성,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새로운 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변화를 시도해 나가야 한다. 기존의 단순 업무를 자동화하는 등 업무 효율성을 높여 고품질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시스템화된 최신 감사 기법으로 복잡한 대량의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해 오류를 정정하고 부정에 대응하도록 감사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디지털 감사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최신 디지털 기술과 관련한 전문 지식과 숙련된 경험이 중요하다.

## ○ 최신 IT 기술로 고품질 디지털 감사 서비스 제공

삼정KPMG의 Audit innovation팀은 최신 IT 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하며, 고품질의 디지털 감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KPMG Global에서 개발한 다양한 데이터 분석(D&A) 툴(Tool) 및 효율화 툴 중 한국 감사 현황에 맞춘 툴을 도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감사팀의 니즈(Needs)를 반영해 자체적으로 툴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까지 도입된 데이터 분석(D&A) 툴에는 기

업위험분석시스템(CRA), KPMG Clara Advanced Capabilities(KCAC), KPMG Clara Analytics(KCA) 및 KPMG Forecast and Analytics Suite(KFAS) 있다. 이러한 툴은 예측·분석 기능으로 비즈니스에 대한 전망과 위험을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등 고품질의 회계감사를 지원하고 감사 샘플링 기법을 넘어선 전수 데이터를 통해 더욱 정교한 감사를 가능하게 한다. 감사 효율화 툴에는 DataSnipper, KPMG Clara for clients (KCfc) 및 Mapping Bot이 있으며 단순 반복 업무를 줄여 이 시간을 유의적 위험에 대응하는 실증절차 설계 및 수행 등에 투입함으로써 감사의 효과성·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Audit innovation팀은 Audit에서 Innovation을 디자인하고 실현하기 위해 Business Intelligence들과 Data Engineer들이 모여, 차이를 만들어 가고 있다. Business Intelligence들은 수년간 Consumer Markets, Financial Services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감사 업무를 진행하며 변화가 필요한 순간들을 경험하고 이를 실현해 가고 있다. 반복 업무를 줄이기 위해 KPMG Global의 사례를 살살이 살펴 선진적인 감사 툴을 찾아내고 국내 감사 현실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현지화해 도입했다. 또한 경계 융화가 일어



나는 빅 블러 시대에 발맞춰 기존의 감사 방법과는 다른, Financial Data뿐만 아니라 Sales and Distribution, Material Management, System Configuration과 같은 ERP Data를 전수 분석함으로써 감사 업무에 신뢰성을 높일 더 나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Data Engineer들은 Business Intelligence가 적재적소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데이터를 추출(Extract), 가공(Transformation), 적재(Load)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설계하고 구축해 데이터를 수령하는 시점에서부터 분석하도록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신규 감사 툴 도입을 위한 시스템 환경을 구축하고 기술적 이슈를 해결하면서 정해진 시간과 비용 내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 Audit Innovation팀 주요 서비스

#### 📄 감사 업무 효율화 위한 시스템 개발 및 구축

- KPMG Global 제공 감사 툴 도입
- 새로운 감사 툴 자체 개발

#### 👤 감사 Quality 제고 위한 감사본부 지원

- 새로운 툴 활용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자료 제공
- D&A Tool인 KCAC와 KCa 등 활용한 대시보드 생성 및 가이드 제공

#### IT 감사 혁신 주도하며 차별화된 감사 서비스 지원할 것

Audit Innovation팀은 혁신적인 IT Audit 방법론 도입을 주도하며 회계감사의 가치를 실현해 가고자 한다. 다양한 혁신적인 IT Audit 기법을 선제 적용하고, 도입된 툴 및 IT 감사 기법을 감사 업무에 적절히 활용하도록 감사팀 지원을 확대해 KCw의 성공적인 도입과 정착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위험 분석 시스템 등 자체 개발한 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최근 이슈인 암호화폐의 회계 처리와 같이 새롭게 직면하는 업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가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삼정KPMG만의 차별화된 감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내는 팀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 Audit Innovation팀을 소개한다면?

#### 박원일 상무

wonilpark@kr.kpmg.com



“Audit Innovation팀은 국내의 IT를 활용한 새로운 감사 기법과 기술을 법인 내 선제적으로 도입해 감사 품질을 강화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롭게 직면하는 업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감사팀의 니즈에 기반한 다양한 감사 툴을 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 문유진 S.Manager

ymun@kr.kpmg.com



“우리 팀은 급변하는 환경에 발맞춰 변화가 필요한 기존 절차를 검토하고, 한국에 적용 가능한 글로벌 표준화된 Tool/Solution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기능을 직접 개발하여 감사 업무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점은 다른 팀에서 할 수 없는 큰 경험이자 우리 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홍인수 Manager

insuhong@kr.kpmg.com



“최근 화두가 되는 다양한 감사 이슈를 파악하고, 전 세계 여러 곳에서 개발하고 연구된 다양한 KPMG 툴을 우리 국내 감사 상황에 맞춰 도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감사 툴과 개발을 통해 기업들의 디지털 변혁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 글로벌 제약 시장을 선도하는 동아ST



동아ST는 (구)동아제약의 지주회사 전환에 따라 2013년 3월에 새롭게 출발한 전문의약품(ETC) 기업이다. 혁신적 신약 개발을 통해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강한 미래를 이끌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글로벌 제약사로 성장하고 있는 동아ST를 만나본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동아ST 본사 사옥 전경



## ○ 국내에서 가장 많은 신약 배출, 과감한 R&D 투자로 지속적으로 신약 개발해

동아ST는 전문의약품(ETC), 해외 수출, 의료기기 및 진단사업에 특화된 기업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신약을 배출한 국내 대표 제약사이다. 동아ST는 Vision 2025 - '글로벌 신약으로 도약하는 Leading Company(선도 기업)'를 목표 삼아 국내 제약 산업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탄탄한 기술력을 가진 동아ST는 과감한 연구개발(R&D)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3년 389억 원을 시작으로 2021년 823억 원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며 10년도 안 된 사이에 111.6%(434억) 증대됐다. 총투자비용은 6,147억 원으로 매년 동아ST 매출액의 평균 10%를 투자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당뇨병치료제, 과민성방광치료제, 치매패치 등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3월 인천 송도 R&D 바이오 센터 준공 및 중점치료제(TA)로 항암, 퇴행성 뇌 질환 등을 선정해 '미충족 수요(un-met needs)' 질환 연구 개발도 가속화하고 있다. 신약 개발에 탄탄한 기술력을 갖춘 동아ST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에도 진출했다. 글로벌 신약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인 DMB-3115의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며, 스텔라라의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에 미국과 유럽에서 출시할 예정이다. 스텔라라는 2021년 기준 글로벌 매출액 9조 원을 넘긴 블록버스터 제품이다.

## ○ 사회적가치위원회 출범, ESG 경영 이끌어

동아ST는 파이프라인 확대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를 보호하고자 2020년 7월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출범했다.

사회적가치위원회는 환경, 안전, 보건, 법률과 규범에 대한 대응을 선도적으로 주도하며, 환경보호를 통해 사회적 책임과 역할 수행을 목표로 산업재해 발생, 온실가스 배출, 용수 사용, 오폐수 배출, 폐기물 발생 등의 지속가능경영 성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0년 각 제조공정 설비 개선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전년 대비 431t을 줄였고, RO/EDI 퇴출 수 재사용 설비 적용으로 전년 대비 4.8%의 폐수를 절감하는 등의 결과를 보여줬다. 심각한 사회 환경적 문제가 될 수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플라스틱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플라스틱 제로(Plastic-Zero)’ 캠페인도 추진 중이다.

사회공헌 활동도 꾸준히 실현하고 있다. 봉사약국 트럭 운영, 저신장 아동 성장호르몬제 기부, 저소득 암 환자 약제비 지원 등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지속 중이다. 평화의 숲 조성사업, 멸종동물 보호 캠페인, 폐의약품 수거, 지구회복 자원순환 캠페인 또한 운영해 환경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배구조 역시 이사회의 기능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사외이사 비율을 전체 이사 중 과반수로 확대해 지속가능경영에 걸맞은 경영

구조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동아ST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2011년부터 시행 중인 지속가능경영 평가에서 지난해 우수등급인 ‘A’를 받았다. 2020년 통합 B+등급을 받았지만, 2021년 평가에서 환경 분야 B+, 사회 분야 A+, 지배 구조 분야 A를 받아 2021년 통합 A등급으로 올라서게 되며 기업가치를 상승시키고 있다.

● **직원들이 행복한 회사로!**

동아ST는 인재경영을 기반으로 인재육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매년 상, 하반기 정기 인원을 채용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신입사원 동아멘토링 프로그램, 계층별 리더십 교육, 직무전문 역량 강화 등의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며 임직원들이 전문 역량과 개별 리더십을 강화해가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직원이 행복한 회사’를 모토로 임직원의 조직에 대한 자긍심과 업무 몰입도를 높이고, 나아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는 가족친화경영과 다양한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PC-OFF 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으로 유연한 근무 환경을 구축하고 패밀리 데이, 전세자금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출산 및 육아휴직 활성화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1. 취약계층 골다공증 환자 치료제 지원 업무 협약 2. 경기도 연천군 '평화의 숲' 만들기 행사 3. 미래 꿈나무 중학생을 대상으로 열린 '청소년 환경사랑·생명사랑 교실'

# 불황 속 주목받는 부실채권(NPL) 시장 대응 전략은?

1998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3년 가계부채 문제와 경기 침체 등 경제 불황기에 오히려 성장했던 부실채권(Non-Performing Loan, NPL) 시장이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부실채권 시장의 현 상황을 짚어보고, 부실채권 시장의 성장 가능성으로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다양한 플레이어들을 위한 고려 사항을 살펴보려 한다.



## Q1 부실채권 시장이 다시금 주목받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과거 경제위기 때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나 규모가 경제 성장률과 반대로 움직였던 패턴을 보인 반면, 코로나19 기간 동안 은행의 대출 부실은 오히려 축소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금융기관 건전성 지표가 개선돼 보이지만, 실상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리 인하 등 위기대응 조치의 영향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망 문제, 원자재 상승, 환율 및 자산가격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따라 한계기업과 취약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상환 능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손실 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올해 9월 이후 코로나19 금융지원 및 완화 조치가 종료되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잠재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에서는 대손비용이 증가하거나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부실자산을 정리·매각하면서 부실채권 시장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Q2 부실채권 시장 진입에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먼저 부실채권 매각 규모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실채권 매각 규모는 경기 변동에 따른 부실채권 발생 규모뿐만 아니라 은행의 건전성

관리 역량 수준이나 정책적 요인 등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세부 정책 방향을 모니터링하고, 2009년 일부 카드사의 부실채권 매각 사례 등을 참고해 제2금융권에서 발생하는 부실채권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2금융권에서 매각되는 PF채권, 무담보채권과 같이 복잡한 권리관계, 담보가치 변동성이 높은 부실채권에 대한 가치 산정 및 관리 역량이 부실채권 투자자들의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전략도 고민해야 합니다.

둘째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매입률과 회수율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최근 은행의 부실채권 매각 물량이 감소하면서 부실채권 투자자 간의 부실채권 매입 경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실채권 매입률의 상승은 투자기업에게 수익성 확보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적정 밸류에이션 산정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NPL 담보 가치 및 채권회수기간과 회수율 등이 부동산 경기 등에 밀접하게 연관되는 만큼 국내 부동산 경기가 조정되는 시점에서 자본관리 능력, 회수율 저하 가능성과 같은 부담 요인에 대한 분석과 선제 대응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Deal Adv2 김정환 전무

Tel. 02-2112-3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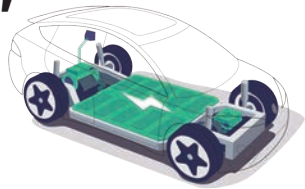
E-mail. junghwankim@kr.kpmg.com

<이 칼럼은 지난 9월 2일 게재된 한경CFO Insight “불황 속 주목받는 부실채권(NPL) 시장 대응 전략은?”을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 상식!

우리의 지식을 한 단계 Up 시켜주는 <맛있는 경제>에서는 올 초 미국이 한국, 일본, 대만에 반도체 동맹을 제안하며 탄생한 용어와 설명이 가능해진 AI에 대한 용어를 살펴보려 한다. 아울러,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K-배터리 3사가 선전하고 있는 소식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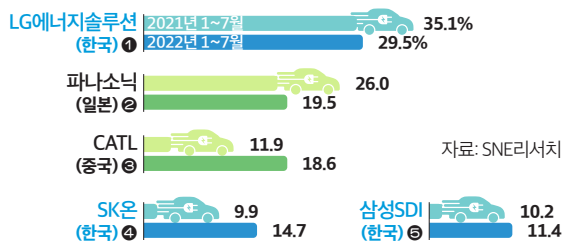
## K-배터리 3사, 中 제외 글로벌 시장 점유율 55.6% 기록하며 '선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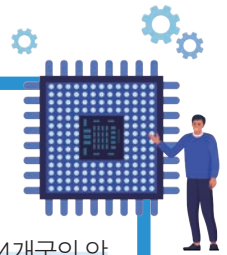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국내 배터리(이차전지) 3사가 중국 시장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55.6%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선전했다. 지난 9월 5일, SNE리서치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1~7월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이 31.1GWh로 전년동기 대비 18% 증가하며, 1위 자리에 올랐다. SK온은 전년 동기 대비 108.1% 늘어난 15.5GWh로 점유율 14.7%를 기록하며 4위에, 삼성SDI는 배터리 사용량이 12GWh로 같은 기간 56.6% 늘어나면서 5위(점유율 11.4%)를 기록했다. 한편, 전기차에는 순수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하이브리드차가 포함된다.

###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점유율

연간 누적, 중국 시장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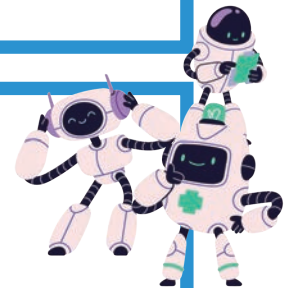
## 칩4 동맹



미국이 올해 3월 제안한 한국, 일본, 대만 4개국의 안정적인 반도체 생산·공급망 형성을 목표로 한 동맹을 말한다. '칩'은 반도체, '4'는 동맹국의 수를 의미하며, 미국이 추진하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동맹국들과 함께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인텔, 퀄컴 등 대표적인 반도체 설계기업이 있는 미국은 팹리스 시장점유율 세계 1위이다. 또한, 대만, 한국은 TSMC, 삼성전자가 각각 파운드리 시장 1, 2위이며 일본은 반도체 소재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미국의 반도체 원천기술,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제조 능력을 결합해 '반도체 공급망 협력 체제'를 만들자는 구상이 칩4 동맹이다.

## 설명 가능한 AI

(XAI·Explainable AI)



인공지능(AI)의 판단 결과에 대한 이유를 인간이 이해하도록 제공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AI 시스템이 고양이 이미지를 분류할 경우, 기존 시스템은 고양이 이미지의 여부만을 판별하지만 XAI는 털·수염 등 그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까지 제시하는 방식이다. 최근 금융위에서는 상품 추천, 여신 심사 등 금융 분야에서의 AI 의사결정 확대에 대비해 XAI의 도입·운영과 관련한 기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설명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AI가 여신을 불승인하면 소비자가 사유를 알지 못해 장기간 금융접근성이 제한되는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XAI 정의와 요건, 구현 사례 등을 포함한 안내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 Happy workplace



## People First I

MZ세대 취향 저격!  
2022 신입 회계사 교육  
현장 속으로

16

## People First II

2022 신입 회계사 집중탐구  
열정으로 뭉친 신입 회계사  
4인방을 소개합니다!

20

## 인재양성소

GEP 12기 우수자  
영국 캠브리지 해외연수 스토리  
2주간의 영국 해외연수  
즐거웠나요?

22

## 삼정인터뷰

꿈과 희망을 전하는 멘토 3인방!  
“열정 가득한 학생들 보며  
더 힘을 얻어요!”

24

## 이동규의 두줄칼럼

혁신의 최전선 26

## Samjong News

‘제8회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 성료 外

## 心 Care

언제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까?  
마음 돌보기의 골든타임

28

30

MZ세대 취향 저격!

## 2022 신입 회계사 교육 현장 속으로

삼성KPMG가 Vision 2025를 함께 이뤄갈 신입 회계사 약 390명을 새 가족으로 맞이했다. 신입 회계사들은 약 2주간 입문, 직무 교육을 참여하며 전문가로서의 시작을 준비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온택트 교육으로 진행해온 삼성KPMG는 2022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3년 만에 신입 회계사 입문 교육을 대면으로 진행했다. 톡톡 튀는 MZ 세대 신입 회계사들의 열정적인 교육 현장으로 들어가 본다.

# 2022 신입 회계사를 소개합니다!



People First I



○ 'Everyone a Leader!'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린 입문 교육

지난 9월 7일 예비 소집 이후 삼정KPMG 신입 회계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9월 26~28일까지, 경기도 광주 곤지암 리조트에서 열린 입문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삼정KPMG는 신입 회계사들이 안정적으로 전문가로서의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온보딩 프로그램(On-Boarding Program)을 진행하고 있다. 온보딩 프로그램은 삼정KPMG 인재상인 'Everyone a Leader'로 신뢰를 주며,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서로의 성장을 이끄는 리더로서 필요한 교육을 받는다.

특히, 올해는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되는 교육이라 더욱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팬데믹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만큼 방역 관리에도 더욱 신경을 썼다. 자가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속소는 1인 1룸으로 지정하며, 팀 빌딩 활동은 야외에서 진행했다.

○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스페셜리스트의 첫 시작

입문 교육 1일 차, 첫 순서로 먼저 삼정KPMG에 대해 알아보고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삼정KPMG의 조직문화, 해외파견제도, 복지 프로그램 안내 등 삼정KPMG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다. 아울러, 몸으로 표현하는 OX 퀴즈를 통해 법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법인과 한 뼘 더 가까워졌다.

이어 KPMG의 Integrity, Excellence, Courage, Together, For Better 5가지 Value에 대해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는 'Value Race' 세션이 진행됐다. 이는 Value를 주제로 다양한 팀 게임 활동을 통해 미션을 수행하고, 동기들과 소통하며 화합하는 과정을 거쳐 Value를 내재화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어 '나의 강점 이해' 세션을 통해 법인 생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신입 회계사들의 강점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입문 교육 첫날은 삼성KPMG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했다면, 둘째 날은 사회인으로서 지켜야 할 매너와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선배 회계사를 통해 들어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신입 회계사들의 시작을 돕기 위해 FY22 신입 파트너 20 명이 직접 강사로 나섰다. 신입 파트너들은 사회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비즈니스 매너, 시간 관리 등을 본인만의 노하우로 소개했다. 비즈니스를 위한 기본 에티켓뿐만 아니라 파트너들이 삼성KPMG에서 전문가로서 경험하고, 느꼈던 본인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신입 회계사들이 앞으로의 업무에 대해 간접 경험하고, 커리어 로드맵을 그려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슬기로운 삼성생활’이란 주제로 토크쇼가 열렸다. 이는 주니어 선배들이 직접 MC와 패널로 나서, 그동안 본인들이 경험한 법인 생활에 대해 생생한 조언과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등에 대해 전했다.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신입 회계사들은 그간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입문 교육 2일 차 저녁에는 신입 회계사를 환영하는 축하 만찬이 열렸다. 만찬 현장에는 김교태 회장을 비롯하여 운영위원 등이 참석해 신입 회계사를 환영하며, 이들의 시작을 응원했다. 만찬에 앞서, 김교태 회장은 삼성KPMG의 향후 비전과 전략에 대해 직접 메시지를 전하며 MZ세대 신입 회계사들과 소통했다.

입문 교육 마지막 날에는 삼성KPMG에 대한 골든벨 게임을 진행해 입문 교육에서 배우고 알아뒀던 삼성KPMG에 대해 다시 한번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Value를 주제로 신입 회계사들이 직접 만든 숏츠 영상을 시청하며 모든 입문 교육이 마무리됐다.

○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전문가로!**  
**직무 교육 후 3개월간 멘토링 활동 진행**

한편, 신입 회계사들은 9월 29일 전문가로서 지켜야 할 윤리 의식과 품질관리 규정, 독립성 등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전문가로서 각자의 목표를 다짐했다.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는 각 Function별로 직무 교육에 임하며 선배 회계사들을 통해 기본 업무 지식과 현업에 필요한 실무 지식을 습득했다. 아울러, 삼성KPMG는 신입 회계사들이 법인에 빠르게 적응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향후 3개월간 본부별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2주간의 입문, 직무 교육을 모두 마친 신입 회계사들은 이제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하는 전문가로서의 그 시작을 앞두고 있다. 이들의 힘찬 시작을 응원하며 People First를 추구하는 삼성KPMG에서 그 꿈과 희망을 펼쳐 나가기를 기대해본다.





"이번 'Value Race'를 통해 팀원들과 친해지고 팀워크를 다질 수 있었어요! 특히, 오랜만에 야외 활동을 해서 매우 즐거웠고, 온몸으로 움직이며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삼정탐구생활' 세션을 들으며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3년 후 GEP(Global Elite Program) 우수자로 선정되고 싶다는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선배 회계사님들의 토크쇼로 진행된 '슬기로운 삼정생활'을 통해 법인 적응에 도움이 될만한 노하우와 꿀팁을 얻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입문 교육 과제 중 'Value Shorts' 제작을 통해 법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동기들과 협동하며 만든 영상이 두근두근 추억으로 남을 것 같네요!"

"법인의 비전과 전략 등을 회장님께 직접 들어볼 수 있어 좋았고, 삼정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환영 메시지를 통해 의지를 불태울 수 있었어요!"

"법인에 입사하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 입문 교육은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밀도 있고, 알찬 일정이라 지금보다 더 긴 교육으로 진행해도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Q4. 선배 회계사님들의 1, 2년차를 뒤돌아볼 때 가장 어려웠던 일과 그 일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궁금합니다.

1. 신입 회계사들이 레크리에이션에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 2. 입문 교육 만찬 현장에서 진행된 럭키드로우, 김교태 회장과 유민 회계사가 기념 촬영 중이다 3. 입문 교육 중 찰칵! 4, 5. 'Value Race' 시간! Value를 주제로 다양한 팀 게임 활동을 통해 소통하며, 팀워크를 다졌다 6. 김교태 회장이 입문 교육 현장에 참석해 법인의 비전과 전략 등에 대해 소개하고, 신입 회계사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7. 선배 회계사들과 함께한 토크쇼 '슬기로운 삼정생활' 8. 입문 교육 마지막 날 열린 도전! 골든벨 시간

# 2022 신입 회계사 집중탐구 열정으로 뭉친 신입 회계사 4인방을 소개합니다!



김민진 회계사 (CM2)

**"신입으로서 항상 성실하게,  
열심히 배우려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예쁘게 봐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별명:** 사색가 (여유를 즐기며 생각하는 사람)  
**취미:** 여행, 영화감상, 전시회관람

삼정KPMG 입사라는 좋은 기회로 선배님들과 동기분들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특히 합격하고, 입사가 결정되었을 때, 그간 준비해온 시간들이 떠오르며 끝이 났다는 것에 가장 먼저 안도감이 들었어요. 이후 예비 소집을 거치고, 교육에 참여하며 삼정KPMG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이 점점 더 실감이 나서 행복한 것 같아요! 앞으로 저는 선배님들과 동기분들이 어떤 일든 믿고 맡길 수 있는 후배이자, 동료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신입으로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엑셀도 열심히 배우고 익힐 생각입니다. 엑셀 외에도 신입으로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입사한 동기분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필요할 때 도움을 주며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동주 회계사 (Tax2)

**"선배 회계사님들의 조언과 발자취를  
따라 끊임없이 도전하고 배우며  
전문가로서 첫 단추 잘 끼우겠습니다!"**

**별명:** 동동주 (언어유희로, 이름 때문에 생긴 별명)  
**취미:** 농구 (농구를 좋아해서 삼정동호회 농구 가입도 희망해)

삼정KPMG 입사가 결정된 후, 정말 기뻐했습니다! 저는 입사 전에 법인에서 인턴 및 파트타임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 부서는 다르지만 업무를 수행하며 법인 내 많은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고, 무엇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법인 만큼 배우고 성장할 기회가 많은 곳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법인 합격 소식을 듣고, 깔끔한 정장을 입고 일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기뻐했습니다. 이런 설렘과 기쁜 마음으로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고 배워 나가고자 합니다. 성장률 1위를 기록하며 승승장구 중인 법인에서 많이 배우고 경험하면서 법인 성장에 기여하고, 또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2022 신입 회계사를 집중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봤다. 열정과 패기로 뚝뚝 뚫은 신입 회계사 4인방을 만나 입사 소감과 함께 앞으로의 힘찬 각오와 선배 회계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들어봤다.

## "전문가로서의 시작이 기대되고 벅잡니다!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많은 조언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별명: 농진남 (농구에 진심인 남자)  
취미: 농구

저는 올해 1~2월에 ADC에서 인턴을 하며 멋진 선배님들 덕분에 '삼정KPMG에 입사해야겠다'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인턴 생활 중에는 다른 건물에서 근무했지만, 이제 당당히 신입 회계사로서 GFC에 근무하게 되어 너무 영광이고 기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문가로서의 삶이 무척 기대되고 설렙니다. 물론 아직 신입이기에 많이 부족하고, 노력해야 할 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2월 입사 후 첫 시즌을 맞이할 것을 생각하면 웃음조차 나오지 않지만, 삼정KPMG의 체계적인 업무 프로세스와 뛰어난 선배, 동기 회계사분들의 도움으로 함께 성장한다면 웃으며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Busy Season에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회계사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전문가로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배움의 자세로 성장해 가는 자랑스러운 후배가 되겠습니다. 선배님들, 2022년 모든 신입 회계사들 잘 부탁드립니다!"

별명: 맛집탐방러 (매 주말 서울 곳곳의 맛집 탐방)  
취미: 자전거, 러닝, 스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수험 생활을 끝내고 사회인으로서 첫걸음을 삼정KPMG와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입사 전에 증권사와 사모펀드에서 두 차례 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수행하던 프로젝트에서 삼정KPMG와 함께 일할 기회가 있었고, 회계사 선배님들의 전문성에 반해 자연스럽게 수험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꿈을 만들어준 삼정KPMG에서 최종 합격 연락을 받았을 때, 정말 기쁩니다. 제가 삼정인 선배님들을 통해 회계사라는 꿈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줄 자랑스러운 삼정인이 되어야겠다는 새 각오도 품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제가 일하게 될 본부, 그리고 팀 내에서 '인분을 확실히 하자'는 것이 목표이며, 점차 역량을 키워 제가 좋아하는 재무자문 업무의 스페셜리스트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 GEP 12기 우수자 영국 캠브리지 해외연수 스토리

## 2주간의 영국 해외연수 즐거웠나요?

삼정KPMG는 주니어 집중 육성 프로그램 'Global Elite Program(GEP)'을 시행하며, 1~3년 차 주니어들이 직무역량, 글로벌 마인드, 전문가 정신을 함양하도록 지원 중이다. 3년간의 교육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우수자들에게는 법인에서 주관하는 우수자 시상식과 해외연수의 기회도 제공 중이다. 지난 8월에는 그간 코로나19로 가지 못했던 해외연수를 GEP 12기 우수자들이 다녀왔다. 8월 20일부터 9월 2일까지 진행된 영국 캠브리지의 해외연수 스토리를 들어본다.



빙하 트래킹 중 찰칵!



만년설을 누비는 스노모빌 체험

연규진 S. Senior (CM1)

### ○ 로켓 같은 열정 배우며, 성장 다짐!

제게 이번 GEP 연수는 '로켓'입니다! 무한한 우주를 향해 모든 중력을 거슬러 하늘로 날아오르는 로켓처럼 다가 올 미래를 힘차게 나아가게 해줄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 입니다. 저는 일주일간 캠브리지에서 EF 영어 연수를 진행한 후, 자유 여행을 통해 아이슬란드를 다녀왔습니다. 낯선 외국인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패키지 투어를 했는데, 함께 여행하며 그들의 거침없는 도전과 낙천적인 사고방식, 뜨거운 열정을 배우고 왔어요. 한국에 돌아오면 이들에게 배운 열정과 도전정신을 우리 본부 구성원들에게 나누고 싶다는 생각했어요. 물론, 저 역시도 구성원들에게 무한한 열정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로켓 같은 열정, 나누며 성장하겠습니다.

### ○ 잃어버린 나를 찾은 여행

이번 해외연수와 자유여행을 통해 그간 사회생활을 하며 잃어버렸던 제 모습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먼저 첫 1주일은 캠브리지에서 EF 영어 수업을 수강했는데, 단순 영어 수업을 넘어 실무와 관련된 재무관리 과목도 준비되어 있어 매우 만족하며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통해 제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또 예술보다는 음식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도 새삼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 앞으로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된 값진 시간이었어요. 무엇보다 회계사로서 더 성장할 수 있는 삶을 그려볼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시 한번 해외연수에 다녀올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탈리아 로마 콜로세움에서



윤정욱 S. Senior (Tax3)

영국 캠브리지 전경





이탈리아 포로 로마노에서

윤준혁 S. Analyst (Deal Adv5)



현존하는 것 중 가장 오래된 개선문  
티투스 개선문

연결(Connection)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

세계 이번 GEP 해외연수는 ‘연결(Connection)’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먼저, EF 특강을 통해 다양한 문화와 지식의 연결을 경험했습니다. Intercultural Leadership 주제로 Barbara Wang 교수님께서 값진 강의를 펼쳐 주셨고, 우리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해주셔서 인상 깊었습니다. 아울러, KPMG UK의 런던 오피스를 방문함으로써, 지구 반대편에도 우리와 같은 문화와 가치관을 공유하는 조직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KPMG Global Member Firm에 속한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 가치관에 연결되어 있음에 뿌듯했습니다. 끝으로 자유 여행으로 이탈리아를 방문했는데, 2000년 전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현대인의 생활 양식과 놀라울 만큼 비슷한 일상을 살았던 로마인의 흔적을 볼 수 있었고, 역사적 유물들은 나의 존재가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닌, 과거로부터 연결되어온 존재임을 상기시켜줬습니다!

활력을 선물해준 2주의 소중한 시간

저는 2주간의 해외연수 모든 순간이 생생한데요. 그 중 몇 가지 인상 깊은 순간을 꼽자면, EF 영어 수업이 끝난 뒤 조 동료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캠브리지 밤거리를 걸었을 때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평소에 뭉기 힘든 타 본부 동료분들과 그것도 해외에서 동행하며 얘기하고 시간을 보낸다는 게 무척 즐거웠고 멋진 분들과 한 법인에 소속된 사실마저 뿌듯했습니다. 1주간의 영어 수업 후에는 자유시간을 통해 파리와 런던 여행을 즐겼는데, 오랜만에 해외여행이라 무척 설렸습니다. 파리의 화려한 쇼핑 거리를 다니며 즐거운 활기를 느꼈고, 런던의 모던한 오피스 지역을 방문했을 때는 새삼 세상이 참 넓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KPMG 런던 오피스는 물론, 여러 글로벌사의 오피스를 보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원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끝으로, 몸과 마음에 활력을 준 2주간의 연수 기회를 제공해주신 법인에 감사합니다!



영국 캠브리지에서

임수영 Manager (MCSI)



영국 런던의 모습



프랑스의 상징,  
에펠탑

# 꿈과 희망을 전하는 멘토 3인방! “열정 가득한 학생들 보며 더 힘을 얻어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을 위해, 삼정인들이 멘토로 나섰다. 청소년들에게 회계사가 하는 업무를 소개하고, 함께 진로를 고민하며 이들의 꿈을 위해 지원사격 나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로 활동이 제약된 청소년들이 걱정 없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소할 수 있도록 비대면으로 멘토링을 진행했다. 바쁜 업무에도 재능기부 활동에 나선 멘토 삼정인 3인방을 만나본다.



박종혁  
S.Senior  
(CM1)

- 참가 멘토링:
- 2021 꿈을 Dream Project (비대면)
  - 2020 서울진로직업박람회 (비대면)

## ○ 멘티를 통해 성장할 수 있던 시간!

평소 멘토링에 관심이 많던 저는 대학생 때 서대문구 소속 멘토로 활동했어요. 해당 지역 학생들에게 진로 상담을 해주고 교과과목 지도를 하곤 했죠. 그러다 우리 법인의 사랑나눔 활동으로 재능기부 할 기회가 생겨, 2020년 10월에 처음으로 비대면 멘토링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후 기회가 될 때마다 멘토링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회계사라는 직업을 소개하고, 직무 경험담을 나누며 진로 상담을 나눌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어요.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살짝 걱정도 있었지만, 학생들이 멘토링을 참여하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하려고 노력했어요. 덕분에 학생들이 그간 갖고 있던 진로에 대한 깊은 고민을 적극 나눔으로써 제가 준비한 것 이상으로 더 소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멘토링을 하며 제가 더 배우는 것 같습니다. 멘티들과 대화를 나누며 스스로 반성하기도 하고, 긍정적인 피드백 덕분에 저 역시도 전문가로 더욱 발전해 나갈 새 활력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멘티들이 접하기 어려운 실제 업무 경험이나, 진로에 대한 진솔한 견해를 함께 나누도록 비대면 멘토링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멘토링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면?

삼정KPMG는 다양한 사랑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기 위한 꾸준히 재능기부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2022년 연말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멘토링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문의: 강경아 과장 (kyungahkang@kr.kpmg.com/ 02-2112-0048)





○ **어린 학생들의 열정 덕분에 회계사로서 성장을 더욱 다짐하게 돼**

저는 회계사란 직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서울진로직업박람회, 비대면 멘토링에 참여하게 됐어요. 먼저 Audit, Tax, Deal Advisory, 각 Function별로 회계사가 하는 업무에 대해 설명한 후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 개별적으로 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직 진로가 정해지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했기 때문에 회계사라는 직업이 자신과 잘 맞을지 충분한 고민을 하도록 직업적 특성에 대해 더욱 강조하며, 소개했어요. 어떤 멘티는 회계사라는 직업에 대해 잘 몰랐지만, 이번 멘토링 후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고 싶을 만큼 회계사가 하는 업무에 흥미를 느꼈다고 말해주서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저는 이번 멘토링에 참여하면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고등학생 멘티들을 보며 나도 나만의 Career Path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됐어요. 그리고 회계사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보니 새삼 직업윤리가 강조되는 직업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회계사로서 할 수 있는 경험이 일반 직업에 비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앞으로도 삼정KPMG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며, 늘 성장하는 회계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가 멘토링: 2022 서울진로직업박람회 (비대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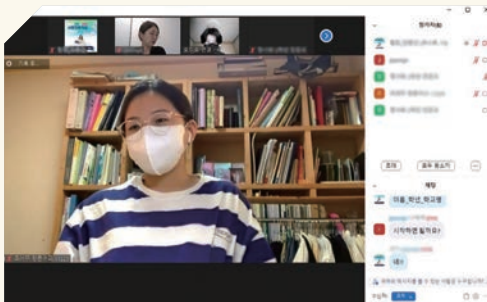


참가 멘토링: 2022 서울진로직업박람회 (비대면)

○ **매너리즘을 탈피하고, 직업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된 시간**

9년 차 회계사로서 요즘 진로에 대한 여러 고민 중에 “내게도 멘토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던 차에, 이번 비대면 멘토링 참가 메일을 보고 “내가 멘토가 되면 어떨까?”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뿌듯한 경험이었어요. 어린 친구들이 열심히 경청해주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 봐주는 게 정말 고맙더라고요. 제가 당연히 생각하는 회계사라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일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이 더욱 생겼어요. 회계사라는 직업이 다른 전문직에 비해 대중화가 덜 되어 있고, 주로 기업의 제한된 팀을 상대하며 일하다 보니, 학생들 입장에서 관심과 호기심은 있지만, 회계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관련 정보를 찾기 어려웠다고 해요. 하지만 이번 기회에 쉽게 설명을 듣고,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하니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요즘 직업적 매너리즘을 살짝 갖고 있었는데, 멘토링을 하며 긍정적인 부분을 알려주고 설명해준다 보니 스스로 “아, 내가 이 직업을 참 좋아하고 얘기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다시 각성하는 계기도 되어서 더 힘내서 일할 원동력도 생겼어요. 앞으로도 재능기부 활동은 물론 같은 팀의 동료들에게도 멘토, 가끔은 멘티 역할을 하며 도움을 주고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시스템보다 문화다  
잘 나갈 때 혁신하라”

## 혁신의 최전선

혁신은 위험하다. 그러나 혁신하지 않는 것은 더 위험하다. 혁명보다 어려운 게 혁신(革新)이라는 말도 있다. ‘혁(革)’이란 원래 짐승의 날가죽(皮)을 벗겨 새롭게 가공한 모습으로 혁신은 정신 개조까지 포함하는 혹독한 가치의 재탄생이다. 서양에서 혁신과 관련한 독특한 관점을 제시한 인물은 역시 스티브 잡스다.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시스템은 시스템을 갖지 않는 것이다. 또한 혁신은 1,000번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 # 혁신을 혁신하라

변화와 혁신. 국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어온 단어다. 그러나 하도 떠들어대다 보니 이전 진부하고도 피곤한 말로 전략한 지 오래다. 오죽하면 “혁신을 혁신하라”는 말까지 튀어나왔겠는가? 중요한 것은 구성원의

자율과 창의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지겨운 혁신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이다. 흥행이 안 되는 영화를 계속 틀어봐야 결과는 뻔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영이란 시스템(S)과 문화(C)의 함수다. 특히 조직보다 자신에게 충성하는 MZ세대에게 중요한 것은 시스템적인 문제보다 문화가 중요하다. 일찍이 피터 드러커는 “전략이 15라면 문화가 85이다”라고 갈파했다. 조직의 문화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큰 비중은 창업자의 철학과 가치에 달려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공감대, 즉 가치공유(value sharing) 여부다.

### # 창조적 혁신의 사례

돌이켜보면 덴마크가 자랑하는 LEGO는 과거 장례식장까지 가기 직전, 젊은 피 요르겐 비 크누스토르프를 CEO로 전격 발탁하는 혁명적 심폐소생술로 가까스로 회생한 스토리의 주인공이다. “최고만이 최선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그의 경영방침은 단순했다. 비핵심 사업을 매각하고 핵심 사업인 블록에 집중해 절명의 위기를 넘겼다. 당시 그가 직접 방문, 조사를 통해 내린 처방은 ‘레고다움’을 회복하기 위한 ‘Back to the Brick’이었다.

넷플릭스는 매우 유니크한 사례다. 넷플릭스는 2020년 기준 21조 매출, 1억 4천만 명에 달하는 글로벌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창업자의 경영철학, <규칙 없음(No Rules Rules)>으로 대표되는 그들이 신봉하는 독특한 기업문화의 기본적 철학은 상식과 자율이다. 'Freedom & Responsibility', 즉 마음대로 해보되 책임은 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알아서 해봐"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는 사람은 안다. 모든 사내 행동에 대한 정책은 'Act in Netflix's best interest', 이 다섯개 단어에 불과하다. 여기는 휴가 정책도 없고 회사에서 몇 시간 일했는지도 중요하지 않다. 오직 성과로만 직원을 평가한다. "넷플릭스에는 복장 규정이 없지만 아무도 알몸으로 출근하지는 않는다." 어떤 매니저의 말이다.

세계적인 디자인 컨설팅회사인 IDEO사는 한마디로 역발상 왕국이다. 디자인싱킹의 리더로서 동사의 경영 방침은 대학 캠퍼스의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직원은 대학의 새내기 같은 분위기를 유도하는 것이다. 그들이 집행해온 일종의 역발상 파티인 'Idea Audition'은 언제나 큰 주목을 끌고 있다. 배스킨라빈스의 아이스크림이 묻지 않는 주걱, 칫솔의 부드러운 손잡이 등이 여기서 나온 것이다. IDEO는 신나는 일터, 진지한 놀이터로 유쾌한 혁신을 제조하는 플레이스테이션(Playstation)이다. 특히 본사 화장실은 바닥까지 내려온 칠판을 설치해서 핸드폰 검색에 빠져있는 직원들을 사색으로 유도하는 등 직원들의 창의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창의적 혁신에는 다이슨도 빠질 수 없다. 창업자인 제임스



다이슨(James Dyson)은 5년간 5,127개의 시제품 개발 시도 끝에 먼지봉투가 필요 없는 진공청소기 개발에 성공했다. 최근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Let my people go surfing)'이란 글귀로 유명한 파타고니아는 낡은 대장간에서 시작해서 세계 최고의 아웃도어 브랜드가 되었다. 동사는 최근 갤럽 조사에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선정된 회사이자 ESG 경영의 롤모델로 뜬 기업이다.

### # 혁신의 타이밍

차별화가 남과 다른 것이라면 혁신은 지금까지와 다른 것이다. 바야흐로 AI 메타노믹스 시대의 혁신은 과거와는 그 양상이 전혀 다를 것으로 보인다. 선도 마케팅 분야는 이미 빅데이터에 기초한 마케팅 5.0 버전을 선보이고 있다. 이 거대한 시대의 변곡점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혁신에 정답은 없지만, 각자의 해답은 있다. 특히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는 것처럼 혁신은 잘 나갈 때 하는 것이다. 배는 이미 기울기 시작했는데 혁신이다 뭐다 난리를 쳐봐야 배는 더욱 빨리 침몰하는 법이다.

### 저자 소개



### 이동규 교수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이 교수는 매우 다양한 경력을 거친 국내 정상급 경영평가 전문가이며, 스타 강사로도 유명하다. 또한 베스트셀러, 『생각의 차이가 일류를 만든다』 저자이자 교보 광화문출판 선정(2022년) 작가이다. 현재 조선일보 고정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두줄칼럼』은 삶과 일에 대한 인사이트, 아이디어 및 최신 트렌드 등을 불과 '두줄'로 풀어낸 국내 최초의 독창적인 초미니 칼럼 (부제: Think Audition)이다. 내용은 주로 인문과 경영의 융복합 구성이며, 생각근육을 키우고 마음의 울림을 느끼게 하는 지식과 사색의 아포리즘 결정체다.



# 언제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까? 마음 돌보기의 골든타임

요즘에는 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개인 심리 상담 치료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들로 스스로의 마음 상태를 자가 진단을 내릴 수 있지만, 이보다 더 깊은 내면의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 전문가를 만나 마음을 들여다보고 치유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과연 어떤 상태일 때, 정신건강 전문가를 만나야 할까? 이번 호에서는 정신건강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짚어보고, 체크해보려 한다.

글. 최은영 임상심리전문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아파야 외부의 도움을 구할까? 약하게 콧물을 흘쩍인다고 바로 업무 시간에 시간을 내어 응급실로 가는 사람은 없을 테다. 으슬으슬 몸이 떨려오고, 머리가 아파 집중이 하나도 되지 않고, 열이 끓어오를 때는 휴식을 취하고 약을 사 먹거나 병원에 간다.

그렇다면 마음은 어느 정도로 힘들어야 도움을 구하는가? 혈압은 '정상 범위'라는 수치가 있고, 장염은 복통처럼 뚜렷하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상이 있지만 마음은 그런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게다가 마음이 아파서 전문적인 도움을 찾는 것은 아직도 넘어야 할 '편견과 오해'라는 거대한 장벽이 있다. 그러다 보니 더더욱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이 정도 힘든 걸로도 병원에 가나?'라는 막막함이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직장인이건 아니건 약물치료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정신건강의학과 방문이 필요한 경우

- 1 감정과 행동, 주의력이 잘 조절되지 않아 직장을 비롯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때
- 2 평소와 확연하게 구분되는 일상생활 기능의 저하 (일상적으로 하던 사회적 활동, 운동, 가정 내 생활을 할 수가 없을 때)
- 3 식욕과 수면 패턴의 눈에 띄는 변화
- 4 죽음에 대한 생각을 지속적으로 할 때
- 5 환청이나 망상 등 비현실적인 생각, 증상이 있을 때



1번, 2번, 3번 항목은 2주 이상 지속적으로 2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면, 4번과 5번은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기를 권한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 증상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가?'이다. 가령, 우울증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슬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꼭 하루 종일 슬픈 것이 아니더라도, 평소보다 기력이 없고 부정적 생각으로 자꾸 빠지고, 그러지 않아도 될 일에 죄책감을 느끼며 일상의 유지가 어려울 정도라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 감정적으로 힘들어지면 뇌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기능,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는 기능, 집중력, 기억력, 계산력 등이 저하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사람은 환경에 반응하는 존재이기에 퇴근하는 순간이나 휴일에 출근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기분이 나아질 수는 있다. 반짝 기분이 괜찮아진다고 해도 뇌 기능 자체가 정상화된 것은 아니므로 스스로의 '지속적인 상태'에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할 정도로 일상 기능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데 이유 없이 마음이 답답하고 '나란 사람은 도대체 왜 이런 걸까?'라는 질문이 들 때가 있다.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약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므로 정신건강의학과가 아닌 상담센터나 정신건강 관련 클리닉을 방문해도 좋다.

### 상담센터 or 정신건강 클리닉 방문이 필요한 경우

- ① 스트레스 사건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경우
- ② 스스로를 더 객관적이고 심도 있게 이해하고 싶은 경우
- ③ 대인관계에서 비슷한 패턴의 어려움이 반복되는 경우
- ④ 우울, 불안 등의 감정을 느끼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경우
- ⑤ 정신건강 관련 자문을 원하는 경우

그렇다면 직장인들이 정신건강 관련 도움을 구하는 가장 흔한 증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회사 내외의 대인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번아웃 증상, 그리고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우울과 불안을 이유로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본인은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몸이 힘들다고 신호를 보내서 찾아오는 이들도 드물지 않다.



병원이든 상담실이든 방문하면 '요즘 식욕은 괜찮은지, 수면은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꼭 물어본다. 그 질문에 답하다 보면 '아니, 문제나 해결해주지 왜 자꾸 이런 걸 묻는답'이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만큼 '밥과 잠'이 '마음'에 가장 중요한 연료다. 나의 밥과 잠을 건강하게 챙기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마음이 잘 작동될 기초는 마련된다.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꾸준히 채워주고, 그 외의 몫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자.

우울하거나 마음이 힘든 것이 신나는 일은 아니지만 반대로 우울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늘 힘이 넘치는 것이 꼭 잘사는 것은 아니다. 정신의학의 거장 위니쿿은 이렇게 말했다. "질병이 없는 상태가 건강일지는 몰라도, 그것은 삶은 아니다."

### Profile

#### 최은영 임상심리전문가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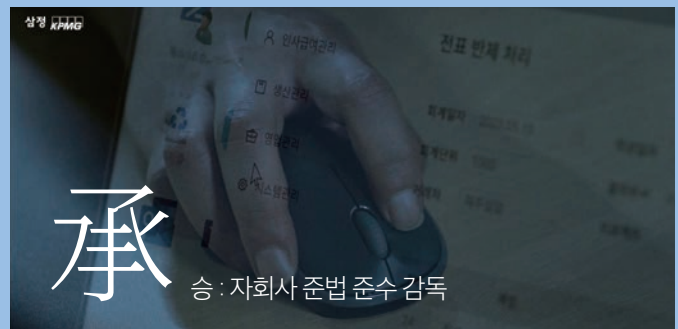
기업과 사람의 정신건강을 위해 마음으로 다가가는 기업 정신건강 힐링멘토. 연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을 공부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임상심리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그 직후에는 심리진단, 평가 영역에서 경력을 쌓았다.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업무뿐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주로 기업 내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현장에서 발로 뛰어왔다. 다수 대기업, 공공기관, 외국계기업에서 상담, 위기개입, 교육을 진행했고, 근로자를 위한 정신건강 관련 글을 썼다. 현재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전임상담사로, 'CIM Care Program'에 참여해 삼성KPMG 구성원들의 스트레스 관리 및 마음치유를 위한 상담을 진행 중이다.

‘제8회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 성료  
‘감사위원회의 자회사 감독과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주제로 열려



ACI 웨비나 동영상 드라마를  
‘삼정KPMG 아카데미’에서 만나보세요!





삼정KPMG는 9월 22일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감사·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제8회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를 웨비나로 개최했다. 올해는 감사위원회의 자회사 감독과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주제로 동영상 드라마를 통해 감사위원회 활동을 전달했다.

삼정KPMG 김교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삼정KPMG ACI가 제작한 영상 드라마와 강연이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앞두고 감사위원회가 모회사-자회사 간 건강한 협업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회계업계 최초로 감사위원회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ACI를 설립하고, 감사위원회의 위상 제고와 실질적인 역할을 지원하면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서는 삼정KPMG ACI 리더 김유경 전무가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역사와 과제'에 대해 기초 강연을 했다. 이어 삼정KPMG ACI 심정훈 상무가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연간계획, 자회사 준법 준수 감독, 자회사 자금횡령 사고 등을 주제로 한 영상 드라마와 함께 발표를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삼정KPMG ACI 자문교수단과 강연자들이 패널토론에 나섰다.

한편,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는 업계 최초로 지난 2015년부터 감사위원회의 올바른 역할 정립과 활성화 지원을 위해 개최되고 있다. 지금까지 3,500명 이상의 감사 및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국내 최대 규모다. 이번 세미나는 삼정KPMG 공식 유튜브 채널과 삼정KPMG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다.

\*Contact: ACI 김유경 전무 youkyoungkim@kr.kpmg.com



국내 최초 동영상 드라마 방식으로 열린 'ACI 웨비나'에서 상영된 동영상 드라마는 온라인 지식 콘텐츠 플랫폼 '삼정KPMG 아카데미'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하며,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 KPMG, 'IPC 2022' 포르투갈에서 4년 만에 열려



지난 9월 12일과 13일 양일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IPC(International Partners' Conference) 2022'가 'For Better'를 주제로 열렸다. 'IPC'는 전 세계 KPMG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KPMG가 걸어온 여정과 향후 비전을 공유하는 컨퍼런스로 2년마다 개최한다. 올해 열린 IPC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행사라 더욱 의미가 깊었다. 'IPC 2022'에는 500명 이상의 전 세계 KPMG 리더가 한자리에 모였으며, 삼성KPMG도 멤버 펌으로서 현장에 참석했다. 컨퍼런스는 포르투갈의 총리 안토니오 코스타의 환영 인사로 시작했다. 이후 KPMG Global 빌 토마스 회장은 KPMG의 여정을 살펴보고 인력, 기술, ESG 부문에서 KPMG가 어떤 기회를 포착하고 있는지 설명했다. 아울러, KPMG의 주요 가치인 'Together, For Better'를 되새기며 전 세계 KPMG 리더들이 교류하며,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 세미나 개최



삼성KPMG가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하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 행사에 참가했다. 행사에서 KPMG 글로벌 핀테크 리더인 안톤 루덴

클라우가 '모든 것의 핀테크: 금융 서비스 개방(The Fintech of everything: Opening up Financial Services)'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맡았다. 삼성KPMG는 9월 28일에 핀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세미나를 진행했다.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 세미나'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핀테크 산업의 성장과 동향, 정책 등을 살펴봄, 특히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국내외 핀테크 기업 또는 이머징 기업의 행보를 조망하는 시간을 가졌다.

\*Contact: Digital 김세호 상무 seihokim@kr.kpmg.com



## FY22 Manager, S.Manager, Director 승진자 교육 연수 진행



삼성KPMG는 FY22 Manager, S.Manager, Director 승진자를 대상으로 교육연수를 진행했다. 9월 20일 진행된 Manager 연수는 약 250명이 참가해 건강한 커뮤니케이션과 조직 문화를 탐색하는 프로그램에 함께했다. 9월 6일 진행된 S.Manager 연수에서는 약 120명의 승진자가 참여해 기존 1개국 4개 일정에서 2개국 8개 일정(6차수)으로 선택의 폭을 확대한 금년도 해외연수 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조원들과 함께 해외연수 계획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10월 7일 승진자 약 90명과 함께 진행된 Director 연수는 ‘삼성KPMG BD전략 및 KPMG Way’ 세션을 통해 법인의 비즈니스 전략과 방법론을 알아보고, 다양한 BD 성공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류재언 변호사가 연사로 나선 ‘Leading People’ 세션에서 협상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한 강연을 수강했다. 승진자들은 ‘CEO 축하메시지’와 함께 승진의 의미를 되새겨 보며 법인의 비전과 전략을 이해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미래의 리더로서 더 큰 도약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제1회 WCD-KPMG ESG 연구회’ 열려

지난 9월 23일 삼성KPMG 본사에서 ‘제1회 WCD-KPMG ESG 연구회’가 개최됐다. WCD Korea와 삼성KPMG가 함께하는 ESG 연구회는 삼성KPMG ESG 전문가들이 기업들의 ESG 관련 주요 이슈에 관한 인사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주요 기업의 이사로 활동 중인 WCD 회원들의 역량 강화 및 역할 정립을 위한 목적으로 출범했다. WCD는 여성 등기이사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로 회원 중 1/3 이상이 주요 기업 이사회에 ESG 위원 및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첫 연구회에서는 삼성KPMG ESG 전문가인 김정남 상무가 연사로 나서, ‘ESG 주요 동향 및 이슈를 주제로 기업이 직면한 ESG 이슈에 대해 살펴봤다. 이어 율촌법무법인 양재선 변호사가 ESG 위원회 운영 현황 및 규정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끝으로 삼성KPMG ESG 전문가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WCD 회원들이 간간 갖고 있던 ESG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삼성KPMG는 WCD의 글로벌 리더 스폰서로서, WCD Korea의 발전과 여성 리더들의 성장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펼치고 있다. ‘제2회 WCD-KPMG ESG 연구회’는 오는 11월 30일에 진행된다.



\*Contact: 노원 전무 wroh@kr.kpmg.com

## 삼정KPMG, 3분기 M&A 금융자문 부문 1위 차지

삼정KPMG가 3분기 더블 인수·합병(M&A) 금융자문 부문 리그테이블에서 1위를 차지했다. 삼정KPMG는 2022년 3분기 완료(잔금납입) 기준 8조 442억 원, 점유율 14.03%의 M&A 금융자문 실적을 올렸다. 삼정KPMG는 LS의 LS니꼬동제련 지분 49.9% 인수 자문을 기반으로 선두로 올라섰다. 또한, JKL파트너스의 LS니꼬동제련 교환사채 인수 자문(4,700억 원)에도 참여했다. 아울러 월비에스엔티 매각 자문사로도 활약했으며, 우리카드의 인도네시아 할부금융사 바타비아 프로스페린도 인수 자문을 담당했다. 삼정KPMG의 2022년 3분기까지의 누적 자문 건수는 총 33건이다.



## 삼정포럼,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 주제로 연세대 김상근 교수 강연 진행



삼정KPMG는 지난 9월 21일 삼정KPMG 본사에서 온·오프라인 동시로 삼정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연세대학교 김상근 교수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삼정KPMG는 이번 포럼을 통해 MZ세대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메디치 가문을 통해 삼정KPMG가 추구하는 People First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했다. 포럼을 통해 김상근 교수는 이탈리아 메디치 가문의 전통에서 현대 사회의 덕목을 찾으며 사람 간 신의를 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메디치 가문처럼 정면돌파의 모범을 보이고 인내와 포용의 가치를 되새길 것을 주문했다.



#### 경력

- PwC 컨설팅 FRC본부 (2018년~2022년)
- 삼정KPMG, RCS본부 (2016년~2018년)
- 외국은행 서울지점 Compliance/IT (2013년~2015년)
- 삼일PwC 컨설팅 (2006년~2013년)

## 신규 영입 파트너를 소개합니다! RCS 정기준 상무 영입

INTRODUCE

삼정KPMG가 8월 16일자로 RCS본부에 정기준 상무를 영입했다.

정기준 상무는 미쓰비시도쿄은행, United Overseas Bank 등 금융권 분야에서 내부통제, 규제준수, 내부감사, 자금세탁방지, 금융제재대응, Digital Forensic 관련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최근에는 글로벌 제조사를 대상으로 반독점, 반부패, 전략물자관리를 비롯한 법규준수 대응 업무와 AI 알고리즘 등 디지털 기술 기반 차세대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추진해왔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통해 RCS본부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기준 상무는 “리스크 관리 자문 서비스의 최고 전문가 집단인 삼정KPMG의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금융산업분야 선도적 리스크 관리 기법을 비금융 분야로 확산하고, 특히 우리나라 수출중심 기업의 글로벌 리스크 자문 서비스를 통한 체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사 소감을 전했다.

## [사랑나눔]

### 아크릴 무드등 제작 비대면 봉사활동 진행

삼정KPMG가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대한적십자사 남부봉사관과 협력해 아크릴 무드등 제작 비대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총 102명이 참가한 이번 봉사활동에서 참가자는 아크릴 무드등을 제작해 아동·청소년이 있는 적십자 결연세대 또는 시설에 전달했다. 김참 S.Manager(Deal Adv3)는 “임신 중인 아내와 함께 각각 고래와 북극곰 모양으로 아크릴 무드등을 제작했다”며 “앞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마음일지, 아이와 함께 살게 되는 삶이란 어떻게 변화할지 도란도란 대화를 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무드등을 완성하였는데 기대 이상으로 예쁘게 만들어져 뿌듯했다. 그리고 이 무드등을 받고 기뻐할 아이들을 떠올리니 행복했다”고 후기를 전했다.



### 추석맞이 ‘사랑의 장바구니’ 전달

삼정KPMG가 지난 9월 6일 추석을 맞아 강남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해 강남구 거주 취약계층에게 ‘사랑의 장바구니’를 전달했다. 강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 거주민 중 어려운 순으로 100가구를 선정하여 추석맞이 생필품을 나눴다. 이번 활동은 코로나19로 봉사활동 없이 후원만 진행됐다.



## 경영 패러다임 변화 속 지속가능한 성장 아젠다 제시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과  
산업별, 분야별 인사이트를 포함한 지식 콘텐츠 제공

### 온라인 지식 콘텐츠 플랫폼

# 삼정KPMG 아카데미



삼정KPMG 아카데미  
미리보기



정규 교육 과정

- 감사위원회 교육 프로그램
-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프로그램
- WCD 사외이사 교육 프로그램

이슈 브리핑

- 국내외 주요 트렌드와 산업별 이슈를 영상 콘텐츠로 제공

비즈니스 리포트

- KPMG의 발간물과 분야별 분석 보고서 저장소

세미나 다시보기

- 삼정KPMG 주요 세미나 다시보기

접속 방법

[www.kpmgacademy.co.kr](http://www.kpmgacademy.co.kr)

포털사이트에서 '삼정KPMG 아카데미' 검색

이용 대상

누구나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이용 가능



'Channel' 구독 정보 변경/ 신규 구독/ 구독 취소 안내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신규 구독을 원하는 분, 또는 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변경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과 전화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E-mail: [kr-fmchannel@kr.kpmg.com](mailto:kr-fmchannel@kr.kpmg.com) Tel: 02-2112-7567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